

# 바레인 경제동향 및 전망 보고

2019.5.16.(목), 주바레인대사관

※ 출처 : 바레인 재정경제부 2019.1분기 경제동향 보고서 및 당지 언론(GDN) 보도

## 1 개요

- 바레인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1.8%를 기록하여 2017년에 비해 성장세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, GCC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
- 2018년에도 비석유부문의 확대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, 대외무역수지 개선,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대 등은 긍정적인 성과이며, 향후 인프라 구축사업이 바레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  - ※ 바레인 재정경제부는 인프라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질 경우 바레인의 실질GDP가 2019년 2.3%, 2020년 2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## 2 2018년도 주요 경제지표

### 가. 경제성장률

-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기준 1.8%를 기록(추정치)하였으며,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임.
  - 이는 ▲2017년에 비해 총 원유생산량이 1.6% 감소함에 따라 석유부문이 작년에 비해 1.3% 감소, ▲100억불 금융지원 확보 및 재정균형 계획이 발표된 2018.10월 이전까지 경제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
    - ※ 2017년 바레인 경제는 3.8%의 실질GDP 성장률 기록
- 바레인 정부는 비석유부문 비중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바, 비석유부문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작년 2.5% 성장한 것으로 조사됨(단, 2017년 4.9%보다 하락).

< 석유/비석유부문 실질GDP 비중 >

연도/부문	석유부문	비석유부문(금융)	비석유부문(제조업)
2000년	43.6%	12.4%	12.4%
2008년	22.7%	14.3%	14.3%
2018년	17.8%	14.5%	14.5%

## 나. 산업별 비중(실질GDP 기준)

- 석유가스 산업은 여전히 바레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,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, 비석유부문중에서는 금융, 제조업(알루미늄 제련 등)의 비중이 가장 크며 건설분야는 약 7.3% 차지 (단위: %)

석유·가스	금융	제조	정부 부문	건설	교통·통신	사회간접 서비스	부동산	무역 (비석유)	관광	기타
17.78	16.51	14.51	13.19	7.28	7.24	6.29	5.86	4.5	2.43	4.48

## 다. 해외직접투자 유입

- 2018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작년의 14억불보다 증가한 15억불(전체 GDP의 4% 규모)을 기록한바,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주요 투자국은 사우디(약 7.5억불), 영국(약 3.9억불), 터키(약 3억불), 인도(약 2.8억불), 쿠웨이트(약 2.1억불)순이며, 주요 투자처로는 은행업(약 11억불), 도·소매(약 6.7억불), ICT(약 2.9억불), 부동산(약 1억불)순으로 나타남.

## 라. 비석유부문 대외교역

- 전년도에 비해 2018년도 수출은 75억불로서 전년대비 약 7% 증가하였으며, 특히 바레인 국내산 제품 수출이 9.2% 증가하였음(수입은 12.6% 증가)

## 마. 물가 및 고용

- 2018년 소비자물가는 2.1%로서 예년에 비해 1.4% 상승하였는바, 주거비, 식료품비는 비교적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으나, 가솔린 연료비 인상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- 2019.1.1부터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2019년 1-2월 현재 소비자물가가 대체로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.
- 바레인내 총 취업자 수는 약 64.5만명으로 대체로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며, 이 중 바레인 국민은 공공분야 약 5.3만명, 민간분야 약 9.4만명으로 나타남바, 이는 작년 대비 1.7% 증가한 수치임.
- 평균임금은 공공분야 902 바레인디나르(약 2399불), 민간분야 723 바레인디나르(약 1923불)로 조사됨.

### 3 향후 전망

- 2018년에도 비석유부문의 확대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, 대외무역수지 개선,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대등은 긍정적인 성과이며, 바레인 재정경제부는 주요 바레인내 인프라 사업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바, 향후 인프라 구축사업이 바레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  - 바레인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BAPCO 현대화 프로젝트 공사가 최근 개시되었고, 2018.4월 신규 발견된 해상 유전/가스전 개발도 진행중에 있으며, Alba Line 6(알루미늄 제련)도 현재 가동중 (2019년 중반에 최대 용량으로 가동 전망)
- 또한, GCC 지역경제의 꾸준한 경제성장, 국제유가 상승 등 유리한 대외여건에 따른 긍정적 과급효과 기대
  - ※ 바레인 재정경제부는 인프라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질 경우 바레인의 실질GDP가 2019년 2.3%, 2020년 2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. 끝.